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이기적 분열’로 치달을 것인가?

근현대사 속에서 개혁·민주·진보 세력이 끊임없이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고 속이 상한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분열로 인해 힘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은 또 얼마나 푹푹 잘 뭍치는지, 어떻게나 돈과 공권력과 갖은 압력을 능수능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잘 쓰는지, 분노가 치밀 정도로 혐오스럽다.

이런 장면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더 속상하다. 왜 분열하는가? 생각이 달라서? 옳지 않아서? 방향이 잘못 돼서? 옳고 그름과 대의를 따지는 능력이 개혁·민주·진보 세력에게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서? 실리보다 명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 그러나 자국의 분열상은 꼭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그라들기 때문에’ 등등. 이런 계산이 작동하는 분

열은 ‘이기적 분열’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분열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면면을 보라. 그들이 과연 희망을 보여 주고 있나? 그들은 과연 대의명분을 위해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일까?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한 조각의 이익을 움켜쥐려는 사람들은 아닌가? 자신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역할도 존재감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기득권 세력은 주도면밀하게 분열을 부추기고, 그런 부추김에 힘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는 세력에 대해서만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이기적 분열’에 대해서 학을 떼다. “진노·비노로 나뉘어 싸우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땀날 갈라서고 합치고 또다시 반복하고, 누굴 위해 그러는 건데요?” “다 자기가 주도하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낫다는데, 무슨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원!”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오랜 시간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이제 학습을 거졌다.

기득권 세력이라고 분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들에게는 ‘이익 또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강한 연결 고리가 있다. 지금 당장 이 자리, 이 기회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자리, 다른 기회가 있을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잘못 찍혔다가는, 캔슬로 튀었다가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또한 그런 공포심을 잘 이용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거대한 먹이사슬이 기득권 세력을 떠받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민주·진보 세력은 어떤 연결고리로 분열을 막을 수 있나? 물론 인간 세상인지라 이익이나 먹이사슬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점점 분열해서 계속 지기만 한다면 대체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30여 퍼센트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회 권력과 재력을 차지하는 기득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여전히 가장 강한 연결 고리는 ‘대의명분’일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

든 자기 이익만 쟁기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나라를 맡겨 둘 것인가? 국가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의 모델로 사용했던 이명박 정권, ‘무능과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분열하다가 또 역사의 기회를 잃을 것인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합의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통합이 가능하다, 통합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다. 이길 희망이 없어서 분열하며 고작 작은 쪼가리 하나 지키려 혈안이 되는 것이다.

부디 이긴다는 희망을 보여 다오! 왜 이겨야만 하는지 대의를 보여 다오! 이 싸움이 명분이 있음을 믿게 해 다오! 대의에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님을 믿게 해 다오. 대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게 해 다오. “알려야지 않겠나!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기고

도시재생 성공의 길, 선진 사례에 있다



임 우 진
광주 서구청장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쇠퇴해가는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변모시킬까 하는 문제는 지방 도시들의 공통된 과제이자 오랜 숙원이다.

이에 따라 최근 도시재생의 성공 경험을 배우기 위해 영국 런던과 스페인 빌바오를 방문했다.

영국 런던과 스페인 빌바오의 도시재생의 경우 지방 정부 시장을 비롯한 공적자들의 사심 없고 소신있는 정책결정과 일관된 추진 노력 그리고 각급 정부간의 협력체계가 성과의 중요한 관건이었다.

전문가 그룹들은 철학과 가치관,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해와 설득의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통해 도시재생을 성공적으

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견학 과정에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두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런던 사례

영화로도 큰 성공을 거둔 조앤 K. 롤링의 소설 해리포터에 나오는 킹스크로스 역은 영화 세트장이 아닌 실제 역사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 킹스크로스 역과 광장이 2009년부터 4년간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마치고 2013년 9월 대중에게 공개됐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숙자들의 집합소이자 마약거래가 활개치던 곳이 도시재생 이후 연간 약 4천 7백만명이 이용하는 런던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이면에는 런던시의 전 도시계획국장이었던 피터 비숍 교수의 역할이 컸다. 67에이커(약270,000㎡)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지휘한 피터 비숍 교수 역시 처음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 정부와 개발사업 시행자 간 의견 차이도 컸었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분분했다.

이에 비숍 교수는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시재생 성공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투어에 나섰고, 전문가를 통

해 지속적인 사업 설명회를 했으며, 3만여명의 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결국, 지역사회의 소통과 융합을 잘 이끌어 내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룬 것이다.

그 결과 유럽 최대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킹스크로스 역세권 재생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2000년 착공에 들어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킹스크로스 역 일대는 비즈니스, 주택단지, 호텔·쇼핑·먹거리 공간, 문화·커뮤니티 공간, 어린이센터,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 명실공히 런던의 명품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인 빌바오 사례

미술관 하나로 매년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가 있다.

바로 스페인 빌바오다. 철강산업도시였던 빌바오가 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시의 젓줄(네르비온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재생의 결과라고 한다.

빌바오 도시재생은 하천 정화, 항만 이전, 문화시설 입지 그리고 가로·철도·주택·공원 등 한 마디로 도시시설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빌바오 역시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는 순조롭지 않았다.

종교칼럼

팅비어 가득찬 마음



김 법 성
광주원음방송 사장

이번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입춘을 지나며 꺾이기 시작한 폭염은 철석에 맞춰 내린 비로 수그러들더니 이제 제법 밤기운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여름을 지나며 피기시작 하는 꽃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입니다. 해바라기는 행복, 기다림, 그리움등 다양한 꽃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태양을 향해 피었다가 고개를 숙이는 꽃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라는 꽃말이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 오를레어에 약 7km에 달하는 해바라기밭이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 꽃밭은 암으로 숨진 아내를 위해 돈 재키시(Don Jaquish)가 조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키시는 아내 바베트(Babette)가 지난 2006년 암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할 때부터 희망의 표시로 집 주변에 해바라기 꽃을 심었고 지난해 11월 아내가 끝내 세상을 떠나면서 해바라기 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썩 값에 밭을 임대해 주고 재키시의 뜻에 동참하면서 7km에 걸친 1.62㎢ 넓이의 해바라기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돈 재키시는 곧 수확될 해바라기씨를 판매해 생전에 약속한 대로 암 치료병원이나 암 연구기관에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뜻에 또 한번 경의를 표하고 두 사람의 사랑에 웃음을 여미게 합니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면서 부부싸움 한번 안하고 살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반역자로 한평생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맹세를 했지만 살다보면 처음 약속은 어디로 간데없고 TV 리모컨 때문에 싸우고 치약을 중간부터 짜 쓴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

다. 등 돌린 마음을 풀지 않으면 법원까지 가게 되고 결국 남남이 되고 맙니다. 불가에서 부부의 인연이 7천겁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 소중한 만남이 악연으로 변하는 것은 경직된 마음을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마음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어느날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당료 병원에 약을 타러 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라는 것이었고 신장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부랴부랴 서울로 성의를 하여 큰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해줍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아내를 간호하며 ‘이 사람이 없으면 어찌 남은 생을 살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숨이 확 막혀 오는 거 같 친지들과 이웃들께 맹세를 했지만 살아온 모습이 필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후 나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밭을 하게 되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청소를 합니다. 아

내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 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빈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진정한 동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금강경에 만일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주착심(住着心)과 분별심(分別心)을 말합니다. 성품은 텅비어 맑고 고요하나 마음은 6근(六根)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들에 의하여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상이 만들어지고 그 상에 의하여 상대를 평가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며 믿고 확인하는 마음 때문에 주착심이 생겨납니다. 주착과 분별심이 없는 텅빈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한다면 치약을 가운데 눌러 짜도 내가 가서 다시 몰아 짜주고 아내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를 같이 본다면 리모컨 정팔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기간의 사소한 마음도 한 마음 바꾸고 보면 이렇듯 행복해집니다. 돈 재키시와 바베트도 해바라기 같은 마음으로 텅비어 가득찬 사랑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社說

문화의 꽃 활짝...아시아문화전당 오늘 개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온 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늘 마침내 문을 열었다. 2005년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이다. 아시아문화수도로 꿈꾸며 건립된 전당의 개관을 맞는 지역민과 문화예술인들은 한껏 부풀어 있다.

전당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 또 다양한 문화를 녹여 내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으로 일구는 과제도 안고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선보이는 전당에 대한 기대는 무척 크다. 지역을 살리고 아시아의 정신세계를 한데 묶는 ‘문화 융광로’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해 낼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전당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남아야 할 산은 많고도 높다. 대한민국 단일 건물 최대 규모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당장 급하다. 내년에도 국비 940억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할 수 있을

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비 지원은 전당의 안정적인 출발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하다.

장기적으로는 정체성과 독립성 확립이 관건이다. 전당은 아시아 문화를 교류하고 많은 문화인이 작업하는 동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운영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자체적으로 전당을 꾸려 나가는 가장 완전적인 조건인 수익 확보가 따라야 한다. 품격을 지니면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만 설사리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간단치 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가장 먼저 지역민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이 책무를 다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전당은 비로소 아시아문화중심으로 우뚝 서면서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법정까지 간 야구장 인근 아파트 소음 피해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소음 문제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주민들, 반면 생각만큼 소음이 크지 않다는 광주시와 기아구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려 벌어진 상황이다.

광주시 임동 모 아파트 소음 피해 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주민 732명이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에는 아파트 4개 동 340세대 가운데 72%가 참여했는데 청구 기간은 지난해 3월 개장 이후부터 최근까지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KIA 구단이 예전의 무동경기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난해 3월 개장 이후부터 최근까지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KIA 구단이 예전의 무동경기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난해 3월 개장 이후부터 최근까지다.

커튼을 쳐야 하고, 소음 때문에 수면 장애와 TV 시청은 물론이고 아이들 학습까지 방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문화체육시설인 야구장 응원 소리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와 수차례 만난 기아 구단도 야구장 스피커를 절반가량만 사용하고 출력도 대폭 낮췄지만 관중의 함성 등은 통제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야구장 소음과 관련된 첫 사례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기회에 경기장 소음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엠프 음량 기준 등 적절한 음원 가이드라인도 만들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에게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즐거워 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KIA 구단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난 8월 인구 2만 7000명의 작은 마을 구례에서 록페스티벌이 열렸다. 행사 개최 소식을 들은 첫 느낌은 “구례에서 ‘록페스티벌’? 그 시골에서?”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등 뮤지션들도 놀라는 눈치였다. 지리산 정도야 알고 있었겠지만 전라도 작은 고을 구례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을 터였다.

페스티벌 현장은 흥미로웠다. 물론 분위기를 주도한 이들은 서울에서부터 따라온 노브레인, 국카스텐의 팬들이었다. 무대 앞 스탠딩 좌석을 차지한 이들은

문화전당, 즐겨라!

문화전당을 지르며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또 다른 이들이 스탠딩 대열에 합류했다.

구례 군민들은 티켓을 반값에 구입했다. 마을 어른들께겐 송해의 구수한 입담이 어우러지는 ‘전국노래자랑’ 공개 녹화나 지역 축제 단골 손님인 트로트 가수 공연이 훨씬 즐거울 것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한국 좀 뽐아주면 더할 나위 없을 터이고.

타할 때, 페스티벌 현장 이곳 저곳에서 인상적인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강렬한 기타와 드럼 소리를 난생 처음 들어봤을

지도 모를 할아버지가 완전 몰입해 음악을 듣는 장면은 신선했다. 밴드의 음악에 맞춰 신나게 ‘막춤’을 추는 아주머니,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춤을 추는 아저씨들, 동네 친구들과 물러나는 청소년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페스티벌을 즐기는 ‘축제의 주인공’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늘, 문을 열었다. 전당을 즐기는 방법은 수백가지다. 매일 전당을 산책하는 즐거움에 들떠 있는 이도 있고, 아이와 함께 어린

이문화원 단골손님이 되겠다는 이도 있다. 예술극장에서는 21일까지 22개국 33편을 만날 수 있고 어린이공연문화축제에서도 40개팀이 공연한다.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불빛 아름다운 야외광장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된다. 숨겨진 보물같은 공간을 찾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전당과 관련해 아쉬운 점도 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인은 바로 나와 당신이라는 점이다. 내 방식으로 마음껏 즐기자!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